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분담에 관한 연구⁺

허수연⁺⁺ · 김한성⁺⁺⁺

[요약]

본 연구는 한국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가사노동분담률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시간 가용성, 상대적 자원, 그리고 성역할태도의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증 분석을 위해 2014년 한국노동패널조사와 부가조사를 활용하여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 총 714쌍을 대상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의 유급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남편의 유급노동시간이 길수록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편의 유급노동시간이 짧을수록, 아내의 소득비가 높을수록, 남편이 공평한 가사분담에 찬성하는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아내의 유급노동시간이 길수록, 남편의 유급노동시간이 짧을수록, 아내의 소득비가 높을수록, 남편이 공평한 가사분담에 찬성하는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남편의 가사노동분담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분담은 시간가용성을 통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고 상대적 자원과 성역할태도의 영향 역시 제한적으로 검증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요인들이 가사노동의 실질적으로 공평한 분담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분담률, 시간가용성, 상대적자원, 성역할태도

※ 논문투고일 - 2019. 02. 28, 심사완료일 - 2019. 05. 29, 게재확정일 - 2019. 05. 29.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7년도).

++ 주저자(syeonh@hanyang.ac.kr),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조교수

+++ 공동저자(hsk@hanyang.ac.kr),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1. 서론

현대 복지국가의 젠더 불평등 담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여성과 남성이 일상의 시간을 서로 다른 양상으로 사용하는 문제이다(Hook, 2010: 1480). 무엇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고 맞벌이가 보편적인 가족구조로 자리 잡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유급노동시장에서의 혁명적인 변화는 가족 내 여성과 남성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였다. 무급 가사노동의 영역은 여전히 성 불평등한 역할분담을 통해 유지되고 있어 ‘지연된 혁명(stalled revolution)’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Hochschild and Machung, 2008; 김영미(2012)에서 재인용). 국가비교 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이 높은 사회에서 남성이 가사 및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사실을 보고하였다(Hook, 2006). 그러나 여성들의 유급노동시간이 늘어난 만큼 남성들의 가사노동참가가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김수정 · 김은지, 2007:148; 은기수, 2009). 여성의 유급노동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어 성 평등한 생활방식이 비교적 견고히 정착되었다고 평가받는 서구에서도 남성의 공평한 가사분담은 찾아보기 어렵다(Hook, 2006).

한국 사회에서 성 불평등한 가사분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변화하는 시대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 속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남성의 가사분담 비율은 매우 미미하며 절대적 가사노동 시간의 격차는 현격하다(정윤태 · 서재욱 2016; 장인수 · 우해봉, 2017). 어느 나라나 어린 자녀를 둔 기혼남녀의 무급노동시간에는 성별 격차가 크게 존재하지만 한국은 이 가운데서도 가장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김영미, 2014). 2004년 통계청 지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32분이었으나 10년의 시간이 흐른 2014년 남성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겨우 8분 증가한 40분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맞벌이 가구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 배우자보다 약 5배 많은 194분으로 보고되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맞벌이 가구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홑벌이 남성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다(통계청, 2014).

가사노동의 일방적인 부담과 불공평한 역할분담은 그 자체로 성 불평등의 문제일 뿐 아니라 여성의 개인 여가 시간을 감소시키고 생활만족과 결혼만족을 낮춤으로서 개인과 가족의 복지를 저해시키는 요인이다(김주현 · 문영주, 2010; 유계숙 외, 2011; 주익현, 2012). 또한 가사노동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기혼 취업여성들의 일-가족 갈등과 시

간갈등을 심화시키는 가장 주요한 심리적 요인이기도 하다(김진욱, 2005; 박기남 2009). 더욱 심각한 것은 불평등한 가사노동분담이 노동시장참가, 임금, 고용지위와 같은 노동시장 성과에서의 성별 격차를 설명하는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라는 사실이다(Ferrant et al., 2014). 가사노동 부담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제약하고 경력단절을 가져오며, 장기적으로 남녀 간 소득 및 노동시장 지위 격차를 확대시키는 숨겨진 원인이다(Gornick and Jacobs, 1998). 결국 무급노동(가사)에서의 불평등은 유급노동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유급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한계와 벽은 다시 가구 내 여성의 지위를 낮추는 악순환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문제가 되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가사노동의 불평등한 분담이 지속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부의 유급노동으로 인한 가용시간의 차이, 소득과 같은 상대적인 자원에 따른 협상력의 차이, 그리고 성역할태도의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유급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여 본인의 유급노동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이 짧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고하였다. 한편, 부부가 가진 상대적인 자원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소득과 같은 자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가사분담에 있어 유리한 협상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역할태도의 영향에 대한 결과는 아직 모호하다. 한국은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부부의 성역할태도는 가사분담을 설명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역할태도의 영향력이 모호한 원인은 선행연구의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성역할태도를 연구모형에 포함하지 않거나(김수정·김은지, 2007), 부부의 성역할태도를 함께 측정하지 않거나(허수연, 2008; 은기수, 2009), 다각적으로 측정되고 분석되어야 할 성역할태도(Shelton and John, 1996)를 단편적인 하나의 문항(‘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동의하는 정도)으로 측정한다(주익현, 2012; 이창순, 2014; 김소영·진미정, 2016; 안미영, 2016)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사노동시간을 설명하는 기존 이론들을 바탕으로 성역할태도에 대한 다양한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시간이 분배되는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즉 한국 맞벌이가구의 가사분담을 설명하는 요인은 가용시간의 차이인가, 소득에 기반한 자원의 차이인가, 또는 성역할태도에서 비

롯된 결과인가를 종합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또한 본 연구는 아내와 남편 각각의 가사노동 시간 사용량 뿐 아니라 부부의 가사노동분담률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가사의 상대적인 ‘분담’에 대해 주목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부부의 가사노동시간만을 개별 분석하고 있는데 가구 특성별로 다르게 나타나 수 있는 무급노동시간을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성(불)평등하게 분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할분담의 비중을 함께 다루어야하기 때문이다.

2. 이론적 배경

1)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결정요인

여성의 역할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오던 가사가 ‘노동’으로 정의되는 데에는 20세기 초 학자들의 사회적 이슈제기에 힘입은 바 크다. 가사노동이 점차 시장에서의 유급노동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행위로 인정받으면서(허수연, 2008) ‘무급’으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지워진 가사노동에 대한 공론화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급증하면서 무급 가사노동의 불평등한 분담은 성 평등의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인생계부양자 가구가 대표적인 가족의 형태로 자리 잡은 오늘날까지 사적 공간인 가정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많은 역할의 주요 책임은 여성에게 부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학자들은 가정 내 가사 및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무급 노동(unpaid labor)에 있어 성불평등한 분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여 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설명으로는 시간 가용성(time availability) 이론, 부부간 상대적 자원(relative resource)의 차이, 그리고 성역할태도(gender role attitudes)를 들 수 있다.

먼저, 시간 가용성(time availability) 이론은 부부가 본인과 배우자의 노동시장참가 시간을 고려하여 가사노동에 들이는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분담한다는 이론이다(김소영·진미정, 2016; Shelton and John, 1996). 이 이론에 따르면 보편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 뿐 아니라 맞벌이라 하더라도 유급노동시간이 더 긴 경향이 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시장에서의 기대소득이 낮기 때문에 남성이 유급노

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여성이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것이 부부의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즉 여성이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것은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를 고려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여성의 유급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오늘날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은 합리적으로 재조정되고 있는가? 이에 대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유급노동시간과 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은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에 각각 부적(negative) 관계와 정적(positive) 관계에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수정, 2007; 허수연, 2008; 은기수, 2009, 안미영, 2016; Shelton and John, 1996; Bianchi et al., 2000). 그러나 반대로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의 증가가 남성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가사노동참여를 끌어내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김진욱, 2005)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가사의 대부분을 전담하는 것은 여전히 여성이라는 현실을 지적한다(Shelton and John, 1996). 여성의 유급노동은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증가는 미미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낮은 수준이다. 여성은 유급노동을 하면서 가사노동을 외주화하거나 대체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일 뿐 남성과의 합리적 분담은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대적 자원(relative resource)의 차이에서 불평등한 가사분담의 원인을 찾는 이론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은 남성과 여성 모두 선호하지 않는 육체노동이자 감정노동이며,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무급노동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따라서 더 많은 자원(높은 교육수준, 높은 직업지위나 소득 등)을 가진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협상력을 활용한다는 것이다(Shelton and John, 1996; Bianchi et al., 2000). 이 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고용지위 및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둘러싼 협상력이 낮아 가사노동을 전담하거나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부부가 가진 상대적 자원이 평등하거나 아내의 소득비중이 더 높을 경우 가사분담의 지형은 달라질 것인가? 선행연구들은 부부의 자원이 평등할수록 가사노동 배분 역시 평등해지며, 아내의 소득비중이 클수록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은기수, 2009; 이창순, 2014; Bianchi et al., 2000; Gupta, 2007).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 역시 있다. 아내의 소득이 남편보다 높거나 고용지위가 더 높더라도 가사노동분담은 뚜렷하게 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전통적인 성역할로 되돌아간다는 지적 또한 있다(김수정·김은지, 2007; Hook, 2006).

마지막으로 여성과 남성이 가진 가용시간이나 상대적 자원이 아닌 성역할 태도(gender role attitudes)에 따라 부부간의 가사노동 분담이 결정된다는 주장이 있다. 성역할태도란 남성과 여성의 일을 ‘직장에서의 일’과 ‘가정에서의 일’로 구분하는 성별 역할 분리에 대한 주관적인 지지 정도이다(김주현·문영주, 2010). 성역할 태도는 특히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에 대한 자신과 배우자의 역할 규범으로 나타나며(유계숙, 2010; 류연규, 2017)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여성은 가사노동을 더 적게 하는 한편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남성은 가사노동에 더 참여하는 경향이 보고된다. 반면 전통적인 성역할관을 가진 사람일수록 여성의 가사노동을 당연시하게 된다(Bianchi et al., 2000; Fuwa, 2004).

가사노동이 가용 시간이나 상대적 자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공평한 가사분담에 수렴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성역할태도를 바탕으로 하는 접근은 개인이 사회적으로 학습된 성역할을 내면화하고 순응한 결과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봄으로서 불평등한 가사분담의 원인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가구 내 시간의 분배는 ‘합리적인 교환’의 결과가 아니라 젠더역할 사회화의 결과이며 젠더 수행(doing gender)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김수정·김은지, 2007). 결국 사회와 가족 내 고착된 성역할태도는 무급가사노동 시간의 성별 격차를 가장 첨예하게 설명할 수 있다(주은선, 2014). 심지어 아내의 유급노동시간이나 경제력이 남편보다 더 커졌을 때 남편은 가사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전된 젠더역할을 만회하기 위해 가사노동을 기피하거나 아내 역시 자신의 가사노동을 늘리는 경향조차 보고된다. 이는 아내가 가정경제를 주도하며 야기된 젠더관계의 역전을 복원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설명되며 (김수정·김은지, 2007; 박기남, 2009; Hook, 2006) 가사노동의 수행이나 배분은 그 자체로 젠더 상징성을 재생산하는 행위임을 보여준다(주익현, 2012). 특히 한국은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가사와 자녀 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모순된 태도(한지숙, 유계숙, 2007; 문지선, 2017)를 가지고 있으며 성역할에 대한 사회규범의 영향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기인 미취학자녀 양육기에 여성과 남성의 무급가사노동시간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김영미, 2014). 따라서 성역할태도는 한국에서의 가사노동 불평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성역할 태도가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Greenstein(2009)에 따르면 성 평등한 사고를 가진 남편은 가사노동에 더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아내의 성역할태도는 남편의 가사노동은 물론 자신의 가사노동에도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성역할 태도는 개인이 지향하는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가치를 본인의 태도로 반영한 것을 뿐 태도가 반드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가사노동에 대한 성역할태도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연구결과 또한 제시되고 있다(Shelton and John, 1996; Bianchi et al., 2000).

2) 국내 선행연구 검토

본 절에서는 그간 한국에서 발표된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영향요인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결과들을 정리한다. 성 불평등한 가사분담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 정도와 원인은 사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외국의 선행연구보다는 한국의 선행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의 가사분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앞 절에서 설명한 시간 가용성, 상대적 자원, 성역할태도를 분석하고 있으나 각각의 영향요인에 대한 측정방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분석결과 역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과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맞벌이 가구 증가 및 가족과 성역할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는 시대에 따라 매우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선행 연구결과를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시대적 흐름에 따라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결정요인이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차성란(1998)은 자체조사 자료를 통해 아내의 가사노동시간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요인에 대해 각각 분석한 결과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은 아내 본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본인 및 남편의 소득, 남편의 유급노동시간이나 부부의 성역할태도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아내의 취업여부와 함께 아내의 성역할태도 및 부부의 성역할태도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에는 시간가용성 이론이 적용가능하며 남편의 가사노

동시간에는 시간가용성 및 성역할태도 모두로 설명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차성란(1998)의 연구는 일부지역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로 연구대상자의 대표성이 낮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김수정과 김은지(2007), 허수연(2008) 및 은기수(2009)는 2004년 통계청의 생활조사시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의 가사노동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아내의 노동시간이 길수록, 남편의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아내의 가사시간이 짧아지는 효과가 나타났을 뿐 아니라 반대로 아내의 노동시간이 길수록, 남편의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남편의 가사시간이 길어지는 효과 역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급노동시간이 부부 모두의 가사시간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소득은 일관된 설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대체로 아내의 소득 또는 상대적인 소득은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나(김수정·김은지, 2007; 은기수, 2009)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설명은 제한적이다. 성역할태도의 경우 허수연(2008)의 연구에서 남편의 성역할태도만이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경우 자신의 성역할태도가 가사노동시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은기수(2009)의 연구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태도가 모두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¹⁾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에서도 가사노동시간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설명은 시간가용성 이론임을 보여준다. 여성의 상대적 소득이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에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이 소득을 통해 가사노동을 외주화하거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일 뿐 ‘협상’을 통해 남성 배우자와 가사노동을 분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체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지는 성역할태도가 가사분담이라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된다.

2010년 이후에는 성별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로서 주익현(2012), 이창순(2014), 김소영과 진미정(2016), 안미영(2016)은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맞벌이 부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개인(아내이던 남편이던)의 유급노동시간은 주로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상대적인 소득비의 경우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으나(주익현, 2012; 이창순, 2014; 김소

1) 김수정과 김은지(2007)의 연구는 성역할태도를 모형에 투입하지 않았음.

영·진미정, 2016)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이창순, 2014; 김소영·진미정, 2016; 안미영, 2016). 이러한 결과 역시 아내는 상대적인 소득의 증가를 통해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으나 남편과의 분담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성역할태도의 경우 부부 모두의 가부장적인 태도는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주익현, 2012), 부부 각각의 성역할태도를 측정 한 연구에서 아내의 성역할태도는 자신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아내의 가사노동시간만을 줄이지만 남편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이창순, 2014).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내의 성역할태도는 부부의 역할분담을 조정할 ‘힘’으로 작용되지 못하며 남편의 태도 역시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을 줄이는데 영향을 줄 뿐 자신의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보면 한국에서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결정 요인은 연구마다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어 일관된 설명을 도출하기 어렵지만 이 가운데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학설은 시간가용성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상대적 소득수준은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에만 제한적인 영향을 가질 뿐이며 성역할태도는 대체로 가사노동시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들 연구들은 안미영(2016)의 연구를 제외하면 모두 가사노동시간의 절대량만을 분석함으로써 가구 특성별로 다를 수 있는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부부의 분담, 즉 가사노동분담률의 요인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누가 얼마나 가사노동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가구 내 필요한 가사노동을 아내와 남편이 어떤 비중으로 분담하였으며 무엇이 분담률을 결정하는지 역시 중요한 이슈이다.²⁾ 또한 이들 선행연구들은 부부의 성역할태도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는 성역할태도를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대한 찬성 정도’로만 측정하고 있는데 개인이 가지는 성역할태도는 다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다 다양한 문항을 통해 측정될 필요가 있다(김영미·류연규, 2013; 원숙연, 2014; Shelton and John, 1996).

2) 예를 들어 남편이 동일하게 하루에 30분씩 가사노동을 하더라도 하루 필요 총 가사노동시간이 1시간인 가구와 5시간인 가구에서 남편의 가사분담 및 기여수준은 다르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선택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17차 년도(2014년) 조사 및 부가조사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 구성원을 대상으로,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17차 년도 부가조사를 통해 만 15세 이상 만 74세 이하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시간사용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³⁾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시간사용 부가조사는 응답자가 30분마다 해당 시간대에 가장 주되게 한 활동을 선택하여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7개의 대분류(수면, 개인관리, 일자리관련, 가사관련, 여가문화등, 교제활동, 기타)와 17개의 소분류를 통해 시간일지에 기록된 생활행동을 분류하고 있다. 분석 자료는 17차 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와 부가조사를 결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전체 조사대상 중 20세 이상 60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로 대상을 한정하는 이유는 통상 이들 부부가 돌봄 및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소요가 가장 많으며 부부간 무급가사노동시간의 차이를 가장 크게 경험하기 때문이다(김영미, 2014). 한편 맞벌이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자에서 제외하여 최종 1,428명(714쌍)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⁴⁾

3) 본 연구와 같은 개인 또는 가구의 시간사용에 대한 연구는 보통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지만 생활시간 조사는 정확하고 세밀한 시간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변수로 측정하고 있는 성역할 태도에 대해서는 단일한 한 문항(“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으로 측정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7차 년도 부가조사에서는 생활시간의 사용 정보 뿐 아니라 응답자의 성역할태도를 다각적으로 측정하고 있어 본 연구에 더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4) 실제로 많은 여성이 무급가족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 중 하나가 부부의 소득비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2) 주요 변수

본 연구모형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수: 가사노동시간 및 가사분담률

가사노동시간을 측정하기에 앞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가사노동의 정의인데 일상생활 중 가사노동 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이견이 있다. 가사노동을 육아와 장보기를 제외한 요리, 청소 등의 가사노동만으로 측정한 연구(김수정·김은지, 2007; 주익현, 2012; 김소영·진미정, 2016)가 있지만 전형적인 가사노동 뿐 아니라 자녀나 고령자 등을 돌보는 돌봄 노동 시간도 포함하여 가사노동시간을 측정한 연구(차성란, 1998; 은기수, 2009; 배호중, 2015; 이승주·이소민, 2017; 장인수·우해봉, 2017), 및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시간을 분리하여 각각 분석한 연구(이창순, 2014; 안미영, 2016)도 있다.

가족에 대한 보살핌은 맞벌이 가구 여성의 일과 가족 양립을 가장 어렵게 하는 무급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사노동시간은 자녀 돌보기(씻기기, 재우기, 놀아주기, 데려다주고 데려오기, 공부시키기) 뿐 아니라 자녀 외 가족돌보기(환자 간병 포함), 가사활동(식사준비, 세탁, 청소, 시장보기,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등)에 대한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측정되었다. 또한 가사분담률은 가구의 총 가사노동시간 대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으로 측정하여 부부의 상대적인 가사분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2) 독립변수

① 유급노동시간

유급노동시간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분담 요인을 설명하는 핵심 가운데 시간가용성을 측정하는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하는 유급노동시간은 통근시간과 주된 취업활동(취업자의 근로활동, 일과 관련된 활동 전반) 및 부업(주된 일 이외의 추가적인 소득활동)을 위한 시간을 모두 합산한 값이다. 한편 가구 내에서 부부 간에 배분되는 가사노동시간은 본인의 유급노동시간 뿐 아니라 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에 따라서도 결정되기 때문에 부부 각각의 유급노동시간을 모형에 투입하였다.

② 소득비

소득은 경제활동의 성과일 뿐 아니라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가사시간과 분담을 둘러싼 부부의 협상력을 결정하는 상대적 자원의 대표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자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인의 소득이 아닌 전체 가구 소득대비 아내의 소득 비율을 측정하여 아내의 상대적인 자원을 모형에 투입하였다.

③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는 아내와 남편의 가사노동에 들이는 시간 및 가사분담과 같은 가구 내 역할을 결정하는 신념과 태도로 선행연구에서 부각되고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 한편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활용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성역할 태도를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대한 찬성정도’라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역할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성역할태도가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항으로 측정되어야 하며(Shelton and John, 1996) 특히 한국 사회에서 성역할태도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이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김영미·류연규, 2013; 원숙연, 2014).⁵⁾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부가조사의 성역할태도에 대한 여섯 문항 가운데 가사노동 및 분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항으로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의 세 문항을 선정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⁶⁾. 맞벌이 부부가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유급노동과 관련 없이 아내가 이상적인 역할을 지향하기 위해 가사노동을 하게 되며,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5) 실제로 성역할태도를 여러 문항으로 측정하였을 때 문항 간의 이질성이 강하게 나타나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기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매우 낮은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김소정, 2013; 차유경·원숙연, 2014; 김은경·심준섭, 2016)

6) 연구모형에 포함하지 않은 성역할태도는 ‘주부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이다. 이들 문항은 이미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에게는 다소 모호한 문항이거나 가사노동의 분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문항이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7) 본 조사 자료에서도 성역할태도의 문항 간 신뢰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 개별 문항을 사용하였다. 개별 문항을 모형에 투입하였을 때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영향을 줄 것이다’고 생각할수록 취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자녀에게 미치지 않도록 가사와 돌봄에 아내가 더 시간을 쓰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할수록 태도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분석할 수 있다. 이들 문항은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3) 통제변수

가사노동시간 및 분담을 설명하는 통제변수로는 연령과 교육수준, 응답요일, 5세 이하 자녀의 유무를 사용하였다. 먼저 연령은 연속변수로서 아내와 남편의 연령을 각각 모형에 투입하였다. 교육수준은 원자료에서 명목변수로 측정되었으며 최종학력이 중등졸업 이하인 응답자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고졸이하,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이상으로 나누어 고졸이하를 중심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연령과 마찬가지로 아내의 교육수준과 남편의 교육수준을 모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응답요일은 응답자가 시간사용을 기입한 날짜가 주말인지 주중인지를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5세 이하 자녀 유무 역시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3) 분석 방법

연구모형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및 남편의 가사분담률에 대한 분석방법으로는 토빗회귀분석(Tobit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도 상당수의 맞벌이 가구 남편이 가사노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⁸⁾ 그러나 가사노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사노동시간이 모두 순수한 0의 값은 아닐 수 있다. 단지 가사노동시간이 0보다 작은 값들이 모두 0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자료값의 분포가 좌측 중도절단(left-censoring)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절단된 형태의 분포를 나타내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 토빗회귀분석이다. 토빗회귀분석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하나의 함수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여부와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

8)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도 분석대상자인 남편의 48.1%가 가사노동시간이 0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주익현(2012), 배호중(2015) 등의 선행연구와도 대체로 일치하는 비율이다.

여 최대우도방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활용하여 추정한다.

토빗회귀모형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y_i^* = \alpha + \beta x_i + e_i$$

위 식에서 종속변수 y_i^* 는 관측불가능한 잠재변수를 의미하며 관측가능한 종속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y_i = y_i^*, \quad y_i^* > 0 \text{인 경우}$$

$$y_i = 0, \quad y_i^* \leq 0 \text{인 경우}$$

다음으로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은 절단된 값을 가지지는 않지만 정규분포가 아닌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분포(right skewed)를 보이기 때문에 가사노동시간에 자연로그값을 취하여 정규분포로 변형한 후 선형회귀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의 인구사회 특성과 주요변수의 기술적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분석대상의 인구사회 특성과 주요변수의 기술분포

N=714쌍, 총 1,428명

	아내	남편
평일 응답	79.3%	
미취학자녀 비율	35.0%	
연령	40.05(5.41)세	42.68(5.81)세
교육수준 (%)		
고등학교졸업 이하	42.7%	35.2%
2년제 대학졸업	21.4%	17.1%
4년제 대학졸업 이상	35.9%	47.8%

	아내	남편
유급노동시간 (일)	7.18(4.27)시간	9.2(4.20)시간
월평균소득	190.36(142.39)만원	337.29(214.34)만원
아내 소득비 평균	35.73(15.08)%	
가사노동시간 (일)	235.5(166.29)분	50.4(88.5)분
성역할태도1: 남자는직장, 여자는가정	2.30(.78)	2.31(.74)
성역할태도2: 일하는엄마 부정적영향	2.58(.74)	2.57(.73)
성역할태도3: 맞벌이 가사공평분담	3.25(.70)	2.84(.69)

()값은 표준편차임

분석대상은 맞벌이 부부 714쌍으로 총 1,428명이며 평일에 시간사용을 응답한 비율은 79.3%,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35.0%이다. 아내의 평균연령은 40.05세로 남편의 평균연령인 42.68세보다 낮았다. 아내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2.7%, 2년제 대학졸업이 21.4%,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이 35.9%이며, 남편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5.2%, 2년제 대학졸업이 17.1%,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이 47.8%로 대체적인 교육수준은 남편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급노동시간은 아내가 일 평균 7.18시간, 남편이 9.2시간으로 남편의 평균 유급노동시간이 약 2시간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은 아내가 190.36만원, 남편이 337.29만원으로 남편의 소득이 더 높았으며 가구 소득 가운데 아내 소득비 평균은 35.73%로 나타나 부부의 유급노동시간 차이에 비해 아내의 상대적 소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아내가 235.5분, 남편이 50.4분으로 부부의 짧은 유급노동시간 차이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성역할태도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인,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4점 만점)’는 명제에 대해 아내의 평균은 2.30점, 남편의 평균은 2.31점으로 나타나 맞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전통적인 성역할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소 높았으며 부부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인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4점 만점)’ 역시 아내의 평균은 2.58점, 남편의 평균은 2.57점으로 역시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아내와 남편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세 번째 질문인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4점 만점)’에 대해서는 아내 평균이 3.25점, 남편 평균이 2.84점으로 나타나 맞벌이 부부의 공평한 가사분담에 대해 아내와 남편이 모두 상대적으로 더 지지하고 있으며 아내의 지지가 더 높은 경향

을 보인다. 이러한 응답분포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맞벌이 부부가 전통적 젠더 역할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맞벌이를 선택하고 있으며, 일단 맞벌이를 선택한 후에는 공평한 가사분담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을 보면 공평한 가사분담을 지지하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분담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실 또한 발견된다.

2)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가사노동분담률 분석결과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아내의 가사노동시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그리고 남편의 가사노동분담률을 각각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분담률에 대한 토빗회귀와 선형회귀분석 결과 N=714가구, 총 1,428명

	아내의 가사노동시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남편의 가사분담률
아내 연령	.001(.003)	-.220(.077)**	-2.023(.571)***
남편 연령	-.004(.003)	.027(.072)	.527(.534)
아내 교육수준(기준:고졸이하)			
2년제 대졸	.013(.022)	.753(.579)	6.520(4.281)
4년제 대졸이상	.003(.024)	.067(.593)	2.044(4.360)
남편 교육수준(기준:고졸이하)			
2년제 대졸	.038(.024)	.436(.630)	-.203(4.659)
4년제 대졸이상	.035(.022)	1.339(.567)*	7.496(4.181)
아내 유급노동시간	-.019(.001)***	-.000(.025)	.819(.209)***
남편 유급노동시간	.003(.001)**	-.262(.031)***	-1.804(.233)***
아내 소득비	-.000(.001)	.035(.014)*	.274(.104)**
미취학자녀	-.094(.022)***	-1.593(.532)**	-8.153(3.964)*
아내 성역할태도1 :남자는직장,여자는가정	.016(.010)	-.514(.282)	-2.211(2.097)
남편 성역할태도1 :남자는직장,여자는가정	.013(.011)	.014(.300)	-1.276(2.222)
아내 성역할태도2 :일하는엄마 부정적영향	.011(.011)	-.014(.299)	1.398(2.230)
남편 성역할태도2 :일하는엄마 부정적영향	.002(.018)	.049(.307)	.141(2.277)
아내 성역할태도3 :맞벌이 가사공평분담	.016(.011)	.238(.277)	-.830(2.052)

	아내의 가사노동시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남편의 가사분담률
남편 성역할태도3 :맞벌이 가사공평분담	.002(.011)	.604(.288)*	6.333(2.146)**
평일 여부	.019(.026)	-.0166(.655)	1.866(4.921)
상수	1.078(.090)***	14.045(2.353)***	88.092(17.344)***
R^2 / LRX^2	0.436***	251.66***	193.11***

*p<.05, **p<.01, ***p<.001

먼저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본인의 유급노동시간이 길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짧아지며 남편의 유급노동시간이 길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 가구소득 대비 아내의 소득비는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아내 본인의 성역할태도는 물론 남편의 성역할태도도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밖에 아내와 남편의 연령과 교육수준, 평일 여부 역시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이 없었으나 미취학 자녀가 있을 때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학설은 시간가용성 이론이며 본인의 유급노동시간 뿐 아니라 남편의 유급노동시간 또한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을 결정한다는 결과가 확인된다.

다음으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본인의 유급노동시간이 짧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내의 유급노동시간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아내의 소득비가 높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결과가 확인되었으며 아내의 성역할태도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으나 남편의 성역할 태도 가운데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는 명제에 동의할수록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 밖에 아내의 연령이 낮을수록, 미취학자녀가 있을수록, 남편의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인 경우에 비해 4년제 대졸 이상일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시간가용성 이론과 상대적 자원, 성역할태도 모두로 설명된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상대적 가사노동시간인 가사노동분담률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아내의 유급노동시간이 길수록, 본인의 유급노동시간이 짧을수록, 아내의 소득비가 높을수록 가사노동분담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역할태도 가운데에서는 남편이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에 동의할수록 가사노동분담률이 커지

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 밖에는 아내의 연령이 낮을수록, 미취학자녀가 있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분담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절대적인 가사노동시간과 유사하게 상대적인 가사노동분담률 역시 시간가용성 이론, 상대적 협상력, 성역할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맞벌이가구의 아내와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 및 가사분담률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들을 바탕으로 부부의 유급노동시간, 상대적 자원을 의미하는 아내의 소득비, 그리고 성역할태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선형회귀모형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및 분담률에 대해서는 토빗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 본인의 유급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남편의 유급노동시간이 길수록,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아내의 소득비와 부부의 성역할태도는 모두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아내의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이 고졸이하의 학력인 경우에 비해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인 경우, 남편의 유급노동시간이 짧을수록, 아내의 소득비가 높을수록,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남편이 ‘맞벌이라면 가사를 공평히 분담해야한다’는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아내의 유급노동시간이나 성역할태도, 남편의 나머지 성역할태도의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아내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내의 유급노동시간이 길수록, 남편의 유급노동시간이 짧을수록, 아내의 소득비가 높을수록,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남편이 ‘맞벌이라면 가사를 공평히 분담해야한다’는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내의 성역할태도나 남편의 다른 성역할태도의 영향은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내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및 분담을 가장 적합하게 설명하는 이론은 여전히 시간가용성 이론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유급노동시간에 따라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배분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수정, 2007; 허수연, 2008; 은기수, 2009; 주익현, 2012; 이창순, 2014; 배호중, 2015; 안미영, 2016).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아내의 경우 본인의 유급노동시간 뿐 아니라 남편의 유급노동시간 역시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남편의 경우 아내의 유급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 본인의 가사분담률은 높아 지지만 절대적인 가사노동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의 유급노동시간이 늘어날 경우 아내는 대체인력 활용이나 서비스 구입, 외주화 등을 통해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임으로서 상대적인 남편의 가사분담률이 높아진 상황으로 유추된다. 그렇다면 부부가 본인과 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을 고려하여 가사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는 시간가용성 이론은 한국에 적합한 이론이라 할 수 있는가? 아내와 달리 남편의 경우 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이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시간가용성 이론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을 반영한다. 실제로 분석대상에 있어 맞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시간이 전혀 없는 많은 남성 응답자의 사례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준다. 결국 아내의 가사노동은 자신과 남편의 유급노동시간에 따라 ‘조정’되지만,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결정은 아내의 상황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무엇보다 가사는 일차적으로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인 관념 속에서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유동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시간가용성 이론은 통계적으로는 일부 유의미하나 이론이 본질적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부부 각각의 노동시간에 따라 가사가 실제로 합리적으로 배분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내의 가구소득기여도, 즉 소득비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및 분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 역시 일부 선행연구결과(은기수, 2009; 주익현, 2012; 배호중, 2015)와 일치한다. 그러나 아내의 소득비는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부부의 상대적 자원에 의한 협상력이 가사노동시간 및 분담을 결정한다는 학설을 제한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소득은 상대적인 협상의 자원으로서 남성의 가사노동시간과 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 사회적 관심의 환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역할태도 가운데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명제와 일하는 엄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반영하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는 명제에 대한 태도는 모두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분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 태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에 찬성하는 남편일수록 본인의 가사노동시간과 가사분담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대부분은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면서 성역할태도에 대해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대체적인 연구결과가 성역할태도는 남편이나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제시한바 있으며 성 이데올로기 이론은 한국 기혼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참여를 설명하는데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까지 도출된바 있다(은기수, 2009).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관념적인 성역할태도가 아닌 가사분담에 대한 직접적인 태도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및 가사분담률을 설명하는 유의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내는 본인과 남편의 모든 성역할태도가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 또한 발견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시간 가용성, 상대적 자원, 그리고 성역할태도는 모두 남편의 가사노동에 영향을 줄 뿐이며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지 못한다. 아내는 유급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이지만 남편의 절대적인 가사노동시간을 늘리지 못한다. 가구소득에 대한 아내의 상대적 기여가 높아져도, 스스로 또는 남편이 어떤 성역할태도를 가지더라도 아내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맞벌이 부부에 있어 가사노동은 남편에게는 상황이나 조건에 따른 변화나 조정이 가능한 선택이지만 아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매우 적은 ‘일방적으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이나 아내의 가구소득 기여도, 또는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남편 자신의 가사노동시간 또는 가사분담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더라도 부부의 가사분담이 실제로 공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본 연구 뿐 아니라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가사노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맞벌이 남성의 비율은 매우 높으며 유급노동시간이 비슷한 맞벌이가구에서도 남편의 절대적

인 가사노동 시간량 또는 가사노동분담 비중은 매우 낮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성역할태도의 영향이 제한적인 것은 태도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국가비교 연구를 통해서도 나타나듯이 한국의 성역할태도는 여성과 남성 모두 보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편(김영미·류연규, 2013; 2016; 문지선, 2017; 이승주·이소민, 2017),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표방하더라도 당위적으로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그 가치가 반영된 태도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이 보고되고 있다(이창순, 2014; 장인수·우해봉, 2017). 인식이나 태도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도 견고한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과 함께 남성의 ‘일 중심’ 직장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여성의 유급노동참여나 소득으로 다 설명되지 못하는 여성의 가구 내 낮은 지위 또는 영향력이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성역할태도와 결합하여 가사노동의 불평등한 분배를 지속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가사노동의 결정은 부부 간에 어떤 협상과 태도를 통해 형성되는지, 또한 가사노동에 들이는 시간의 ‘양’ 뿐 아니라 ‘질’적인 참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기존의 연구 틀에서 벗어난 질적 연구의 보완이 더 필요하다. 아울러 부부 간의 상대적 자원을 소득 뿐 아니라 고용상의 지위 등으로 다양하게 측정함으로써 가사분담의 결정 구조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 김소영 · 진미정, 2016, “부부의 가사노동시간변화: 2004년-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3): 65-84.
- 김소정, 2013,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인기 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4(1): 89-111.
- 김수정 · 김은지, 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교환 혹은 젠더보상?”, 『한국사회학』, 41(2): 147-174.
- 김영미, 2012,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이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 분석”, 『사회보장연구』, 28(2): 211-241.
- 김영미, 2014, “복지국가 제도와 남녀의 무급노동시간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21(1): 143-177.
- 김영미 · 류연규, 2013, “젠더레짐에 따른 성역할태도 결정요인 차이에 관한 연구-스웨덴, 독일, 한국비교-”, 『가족과 문화』, 25(2): 90-128.
- 김은경 · 심준섭, 2016, “성역할 태도가 일-가정 양립 갈등에 미치는 효과”, 『국가정책연구』, 30(4): 323-347.
- 김주현 · 문영주, 2010, “맞벌이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결혼생활만족과 일만족에 미치는 영향-일-가정갈등과 일-가정강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09-126.
- 김진옥, 2005, “근로기혼여성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사회복지학』, 8:51-72.
- 류연규, 2017, “일가족양립정책과 성역할태도가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33(1): 71-105.
- 문지선, 2017, “부부의 성역할 태도로 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한국사회학』, 51(2): 191-232.
- 박기남, 2009,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시간갈등 연구-연령계층별, 성역할 태도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5(2): 37-71.
- 배호중, 2015, “맞벌이 가구 남편의 가사노동시간-휴일이 가구 남편과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1(4): 151-181.
- 안미영, 2016, “한국 맞벌이 부부의 고용 형태와 가족 내 노동 분업의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112:13-40.
- 유계숙 · 강수향 · 오아림 · 이주현, 2011,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

- 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17-136.
- 원숙연, 2014, “성-역할 고정관념의 지형변화와 여성정책에 갖는 함의: 1996년과 2010년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0(3): 141-171.
- 은기수, 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2(3): 145-171.
- 이승주·이소민, 2017,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및 사회적 규범에 대한 여성의 인식이 가사노동시간의 성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합리적 행위이론을 통한 매개효과분석”, 『한국가족복지학』, 58:5-36.
- 이창순, 201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40(3) :29-54.
- 장인수·우해봉, 2017, “기혼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와 영향요인 분석”, 『여성연구』, 95(4): 41-72.
- 정윤태·서재욱, 2016, “성역할 태도와 맞벌이 태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 기혼·유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한 유형화”,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2): 143-160.
- 주익현, 2012, “한국 맞벌이 부부 가사시간 결정요인 탐색-아내의 남편에 대한 경제의존도와 남편의 가사참여 여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099-1113.
- 통계청, 2014,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27
- 차성란, 1998,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노동공평성 인지에 미치는 상호작용적 영향력”, 『대한가정학』, 36(9):139-152.
- 차유경·원숙연, 2014,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작용하는 영향요인-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정책학』, 23(3): 303-328.
- 한지숙, 유계숙, 2007, “기혼근로자의 성역할 태도와 일-가족 지향성이 일-가족 갈등/축진 및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 25(5): 143-166.
- 허수연, 2008, “맞벌이 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4(3): 177-210.
- Bianchi, S. M., Milkie, M. A., Sayer, L. C., and Robinson, J. P., 2000, “Is anyone doing the housework? Trends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9(1): 191-228.
- Ferrant, G., Pesando, L.M., and Nowacka, K., 2014, *Unpaid Care Work: The missing link in the analysis of gender gaps in labour outcomes*, OECD Development Centre December.
- Fuwa, M., 2004, “Macro-level gender inequality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22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6):751-767.
- Gornick, J. C., and Jacobs, J., 1998, “Gender, the welfare state and public sector employment: A comparative study of seven industrialized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688-710.

Gupta, S., 2007, "Autonomy, dependence, or display?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women's earnings and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9(2): 399-417.

Greenstein, T. N., 2009,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Interactive effects of wives' and husbands' gender ideolo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585-595.

Hochschild, A. R., and Machung, A., 1989, *The Second Shift*, New York: Viking.

Hook, J. L., 2006, Care in context: Men's unpaid work in 20 countries, 1965-2003 "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4): 639-660.

Hook, J. L., 2010, "Gender inequality in the welfare state: Sex segregation in housework, 1965-2003",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5(5): 1480-1523.

Shelton, B. A., and John, D., 1996,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1): 299-322.

Abstract

Time Use and Division of Housework in Dual-earner Households in Korea

Huh, Sooyeon

(Hanyang University)

Kim, Hansung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time-availability, relative resource, and gender-role attitudes as the main factors explaining time use and division of housework in dual-earner households in Korea. For empirical analysis we use 2014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nd extract 714 dual-earner couples aged 20 to 60 with pre-school children.

We find that when wives' paid labor time decrease, and when husbands' paid labor time increase, wives tend to spend more time on housework. For husbands, when their paid labor time decrease, when they have more egalitarian attitudes, and when wives' relative income increase, husbands tend to spend more time on housework. Also, when wives paid labor time increase, when husbands' paid labor time decrease, when wives' relative income increase, when husbands have more egalitarian attitudes, couples divide housework time more equally.

On the base of the results, we discuss the limitation of these factors that cannot explain fully the gendered housework division in Korea.

**Key Words : housework time, housework division, time availability, relative resource,
gender-role attitudes**